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⑯ 남산율종(南山律宗)의 창립자 도선(道宣)

▶ 한줄 요약
도선 율사는 율학을 정립하여 남산율종을 창립했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불교에 커다란 업적을 세웠다.



율학 정립, 남산율종 창립…당대 최고 학승

〈唐代〉

당(唐) 초기의 격렬했던 불도지쟁(佛道之爭)의 상황에서 중국불교의 정체성과 교단의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고승이 바로 도선(道宣, 596~667) 율사(律師)이다. 도선은 〈사분율(四分律)〉과 관련된 일련의 저술을 통하여 계단(戒壇)을 건립하였고, 〈석가씨보(釋迦氏譜)〉 등의 찬술하여 불조(佛祖)의 인연을 밝혔으며,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등을 찬술하여 중국에서 번역되고 찬술된 목록을 정리했고, 〈광홍명집(廣弘明集)〉 등을 찬술하여 도교의 비판에 대응하였고, 〈속고승전(續高僧傳)〉 등을 찬술하여 고승들의 행적을 정리하였다. 도선은 모두 35부 188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고 있어 가히 당대 최고의 학승이며 율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선의 생애와 그의 저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선의 전기는 〈송고승전〉과 〈석문정통(釋門正統)〉, 〈신수과분육학승전(新脩科分六學僧傳)〉, 〈고승적요(高僧摘要)〉 등에 실려 있으며, 〈불조통기(佛祖統紀)〉와 같은 사서에 그 행적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도선은 오흥(吳興: 浙江省 湖州市), 혹은 일설에는 단도(丹徒: 江蘇省 鎭江市) 출신이라고 하며, 속성은 전(錢)씨이다. 〈송고승전〉에는 모친이 임신하자 꿈에 범승(梵僧)이 나타나 "그대가 임신한 애는 바로 양조(梁朝)의 승우(僧祐) 율사이다"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실제로 승우는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을 찬술하여 불전의 역경과 찬술 목록을 정리하였는데, 도선도 그와 유사한 성격의 〈대당내전록〉을 찬술하였고, 도선은 승우가 찬술한 〈홍명집〉을 보완하고 확대하여 〈광홍명집〉을 찬술하는 등 두 고승의 행업(行業)은 유사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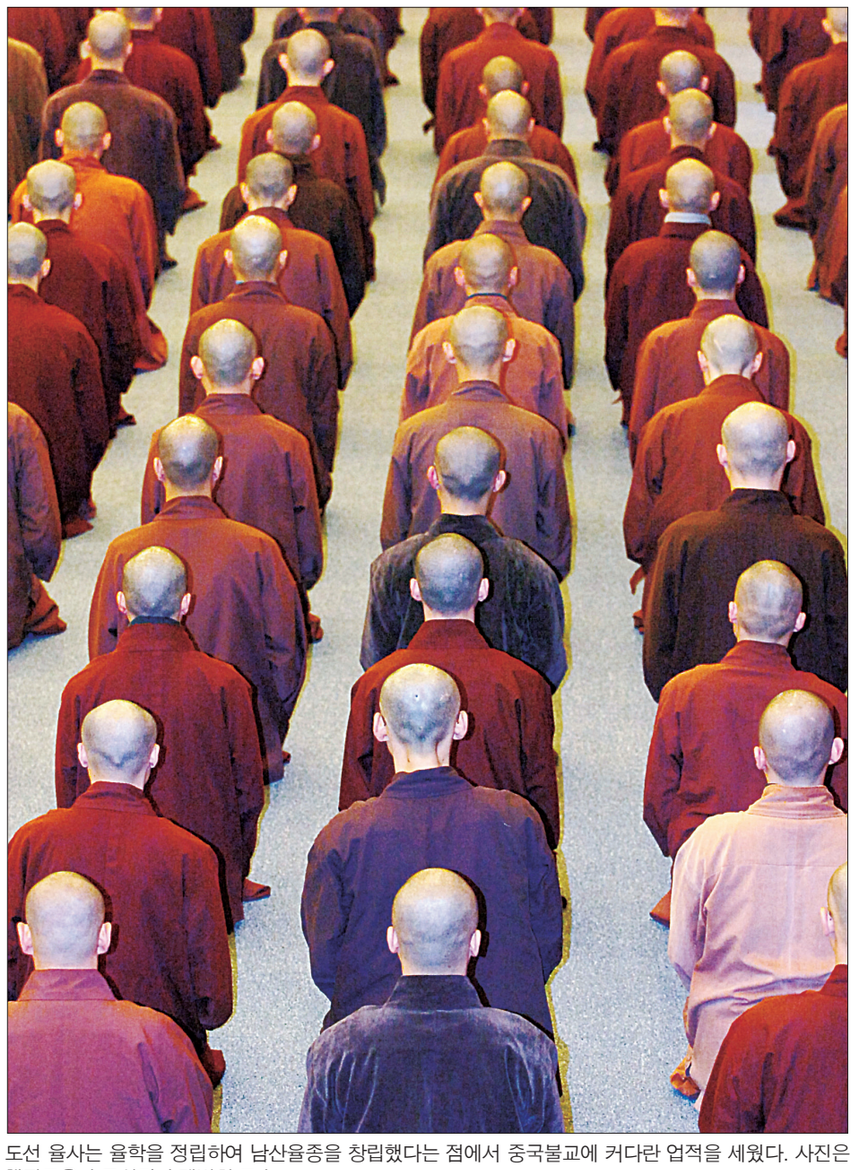
도선의 부친은 남조의 진(陳)에서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역임하였고, 그에 따라 도선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 9세에 능히 부(賦)를 찬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5세에 갑자기 집을 떠나 장안(長安)의 일엄사(日嚴寺)에 들어가 혜군(慧頵)에게 법을 배우다가 다음 해 출가하였고, 20세에 대선정사(大禪定寺) 지수(智首) 율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21세에 지수로부터 본격적으로 율학(律學)을 수업하였는데, 당시 지수는 율학으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으며, 〈사분율소(四分律疏)〉 20권 등을 찬술하여 '사분율종'의 제8조라고 칭한다.

도선은 이 시기에 〈사분율〉에 대한 토대를 확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선은 혜군과 지수로부터 율학을 배우는 한편, 스스로 정해진 스승이 없이 천하를 유람하며 다양한 경전과 교의를 수학하였다고 논술하고 있다. 특히 무덕(武德) 7년(624) 은사인 혜군과 함께 주석하던 일엄사가 '불도지쟁'으로 인하여 고조(高祖)의 명령으로 폐쇄되자 숭의사(崇義寺)로 옮겼다가 그 해에 다시 종남산(終南山)으로 가서 백천사(白泉寺)에 머물게 되었다. 무덕 9년(629) 31세에 도선은 이곳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율학을 정리하여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3권(현 12권)을 찬술하였는데, 이 책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율학의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다음 해 다시 〈사분율습비니의초(四分律拾毘尼義鈔)〉 3권(현 6권)을 찬술하였다.

이후 도선은 몇 년에 걸쳐 전국을 유행하며 뛰어난 율사들을 참알하여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였는데, 정관(貞觀) 9년(635) 40세에 심부(沁部: 山西省 沁縣)의 운실산(雲室山)에 들어가 〈사분율산보수기갈마(四分律刪補隨機羯磨)〉 1권과 그에 대한 〈소(疏)〉 2권을 찬술하였고, 그 후에 다시 〈사분율비구함주계본(四分律比丘含注戒本)〉 1권과 그에 대한 〈소〉 3권을 찬술하였다. 정관 11년(637)에 습주(隰州: 山西省 臨汾市)의 익사곡(益詞谷)에서 〈양처경중의(量處輕重儀)〉 2권, 〈니주계본(尼注戒本)〉 1권을 찬술하였다.

또한 정관 16년(642)에 도선은 종남산 풍덕사(豊德寺)에 들어가 19년(645)에 이르기까지 〈비구니초(比丘尼鈔)〉 3권(현 6권)과 〈속고승전〉 30권을 찬술하였다. 이 해에 서역으로 구법하였던 현장(玄奘, 602~664)이 많은 경전을 지니고 귀국하여 홍법사(弘法寺)에 역장(譯場)을 개설하고 수많은 고승을 초빙하였는데, 도선도 초청받아 참여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646)에 다시 종남산

〈사분율〉 등 188권의 방대한저술
전국 유행하며 뛰어난 율사 참알
태종 칙명으로 현장 역경에 참여
종남산에 계단 20여 명 구족계도
중국 문화 연구자도 저술 고평가



도선 율사는 율학을 정립하여 남산율종을 창립했다는 점에서 중국불교에 커다란 업적을 세웠다. 사진은 행자교육 수료식과 수계법회 모습.

으로 돌아가 풍덕사에서 〈사분율산보수기갈마〉 1권을 2권으로, 그에 대한 〈소〉 2권을 4권으로 늘려서 찬술하였다.

그 후 도선은 종남산에 머물며 현경(顯慶) 2년(656)에 이르기까지 계속 율학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을 찬술하였다. 현경 3년(657), 장안(長安)에 서명사(西明寺)가 신축되자 현장이 태종에게 추천하여 상좌(上座)로 주석하라는 칙명에 따라 다시 입경하였고, 다시 현장의 역경에 참여하였다. 도선은 서명사에 머물면서 또한 〈대당내전록〉 10권, 〈광홍명집〉 30권, 〈석가씨보〉 1권 등을 찬술하였다.

그러나 용삭(龍朔) 5년(665)에 현장이 입적하자 다시 종남산의 정업사(淨業寺)로 옮겼다. 이로부터 도선은 계단(戒壇)의 건립에 집중하였으며, 드디어 건봉(乾峯) 2년(667) 2월, 종남산에 계단을 건립하였고, 의규(儀規)에 따라 20여 명이 구족계를 받았다. 도선은 이후에 〈관중창립계단도경(關中創立戒壇圖經)〉 1권과 〈율상감통전(律相感通傳)〉 1권을 찬술하였다. 이렇게 평생 염원하던 계단을 건립한 이후 10월 30일, 정업사에서 세수 72세, 법랍 52세로 입적하였다.

도선의 제자는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특출한 이는 대자(大慈), 문강(文綱), 명각(名恪) 등이 유명하며, 특히 문강과 그의 제자 도안(道岸)은 도선의 유교(遺敎)를 천양(闡揚)하여 남산율종이 더욱 발전하게 하였다. 도선의 입적 후 의종(毅宗) 함통(咸通) 10년(869)에 '징조(澄照)'라는 시호와 '정광(淨光)'이라는 탑호를 내렸으며, 휘종(徽宗) 숭녕(崇寧) 2년(1103)에 '법혜대사(法慧大師)'라는 시호를 더하였다.

도선 율사는 무엇보다도 율학을 정립하여 남산율종을 창립했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불교에 커다란 업적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선이 건립한 '계단'은 중국에서도 선범(先範)이 되었으며, 이후 한국과 일본의 '계단'의 건립에도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선의 전기에 평생토록 "세 가지 베옷만을 입었으며, 콩잎으로 한 끼만을 먹었고, 유행할 때는 오직 주장자에 의지하였고, 앉아서 침상에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기사로부터 철저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남산율사(南山律師)'라고도 칭하며, 그의 명성이 서역에도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도선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방대한 저술로부터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선은 모두 35부 188권에 이른다고 하며, 〈송고승전〉에는 "220권"이라고도 한다. 그 가운데 〈사분율〉을 중심으로 하는 율종의 저술 이외에 중국불교에 대한 영향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광홍명집〉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대(梁代) 승우가 찬술한 〈홍명집〉을 더욱 확대하여 '광'을 붙이고 있다. 이 책에서는 〈홍명집〉을 근간으로 하여 이후에 활동한 이들의 논설 등의 자료를 집성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호법(護法)'을 위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唐) 초기에 발생한 '불도지쟁'은 도선이 이 책을 집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저술로는 〈집고금불도논형(集古今佛道論衡)〉인데, 여기에서는 제목과 같이 역대에 도교와 불교가 논쟁한 자료를 집성하고 있다. 이 저술 역시 '불도지쟁'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목할 사실은 도선이 활동한 시기인 고종(高宗)과 관련된 사실까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광홍명집〉과 〈집고금불도논형〉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한 이후 발생한 유도 양가와의 교섭 관계, 국가의 불교에 대한 정책 등을 연구하는 데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석가씨보〉와 〈석가방지(釋迦方志)〉, 〈불화동점도찬(佛化東漸圖贊)〉, 〈성적현재도찬(聖迹見在圖贊)〉과 같은 불조(佛祖)의 전기와 관련된 저술과 〈대당내전록〉과 같은 목록집이다. 도선이 이러한 저술을 남긴 것은 바로 불법승(佛法僧)의 삼보(三寶)에 대한 온전한 정립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삼보'는 바로 불교의 근간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없다면 신행이나 구도 역시 그 틀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당내전록〉에서는 '법보(法寶)'인 경율론의 역경(譯經)과 역경가들의 전기 등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로 〈속고승전〉의 저술이다. 앞에서 '불보(佛寶)'와 '법보'를 정립했다면, 〈속고승전〉에서는 바로 '승보(僧寶)'인 고승들의 행적과 사상을 논하고 있다. 여기에 '속'을 붙인 까닭은 남조 양대 혜교(慧皎)의 〈고승전〉을 계승한다는 의도이다. 그렇지만 〈고승전〉은 주로 남조의 고승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결여된 북조의 고승을 추가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고 하겠다.

넷째로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 〈도선율사감통록(道宣律師感通錄)〉, 〈율상감통록(律相感通錄)〉 등과 같은 신앙과 교화의 종류이다. 앞에서 불법승의 삼보에 대한 저술이 존재한다면, 그 삼보에 대한 신앙과 그 영험, 교화 등을 논해야 마땅할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저술들은 모두 도선의 만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도선의 저술은 가장 근본적인 율종과 관련된 부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에 발생한 유도 양가와의 관계 및 국가정책 등을 논한 부류, 불보와 법보를 논한 부류, 신앙과 교화를 논한 부류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실상 이 네 부류 가운데 하나에 정통하기도 어려운데, 도선 율사는 이를 모두 완벽하게 찬술하고 있다. 특히 도선은 율사답게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논술하였음은 학계에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국불교 연구자뿐만 아니라 중국문화의 연구자들도 도선의 저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선 율사에 대한 '당대(唐代) 최고의 학승'이라는 평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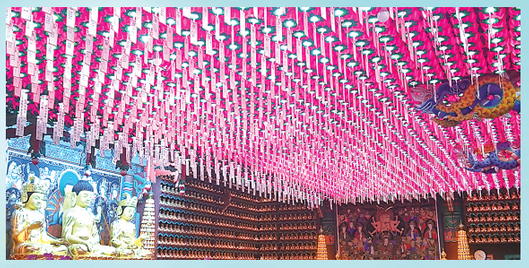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